

모반 / 謀反



문대 여성주의 모임 모반

모반 / 謀反



001. 들어가며_머리분을
002. 일상의 몸모본_부엌과
004. 일상의 과학에서의 여성분석
005. 일상의 생리학_사내기에게 유익한 학
006. 일상의 일기상_하미스계리와 일상의
007. 일상의 일기상_일상의 일기상
008. 일상의 일기상_일상의 일기상
009. 일상의 일기상_일상의 일기상
010. 일상의 일기상_일상의 일기상

문대 여성주의 모임 모반

모반방은 외솔관 지하에 있습니다.

모모



모모 모모 모모 모모 모모

CONTENT

- 001_들어가며_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002_일상의 음모론_부엌과 화장실, 그 은밀한 규칙에 대하여
- 004_읽을거리_과학에서의 여성인식
- 009_정보 페이지_새내기에게 유익한 학교 IN&OUT 정보들
- 012_일상의 정치성_아이스케키와 일상의 폭력
- 014_성폭력_나와 일상의 문제로서의 성폭력 다시보기
- 016_기활, 들어봤니?_기지촌 현장활동 소개
- 019_영화와 책_
- 027_모반? 모반!_문과대 여성주의 모임, 모반을 소개합니다!

CONTENT

프랑스의 비평가 롤랑 바르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을 직접 써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 혹은 그녀라고 상정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그의 이야기, 혹은 그녀의 이야기로 풀어나갈 때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동시에 모르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는 곧 나를 타자화시키고 나를 둘러싼 주변의 모습들을 낯설게 만드는 작업을 거치지 않고서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100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지나쳤던 많은 것들은 낯설게 보기의 과정을 통해 완전한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세계에 대해, 그리고 특히 나에 대해 낯설게 보기는 의미 있는 실천입니다.	500
아버지로 대표되는 수직적 질서가 관계의 규칙들을 구성하고, 의리와 형제애가 관계 맺기의 전형으로 생각되어지는 현재의 사회는 우리의 시야에서 많은 부분들을 가려버립니다. 남성들의 규칙과 관점으로 많은 것들이 구성되고 해석되는 사회에서 여성은 여성 자신의 시각이 아닌 남성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익숙함 속에서 여성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 자신의 욕망은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남성들 또한 모범적으로 짜여진 질서 체계 속에서 순응과 적응의, 무언의 압박을 받습니다.	100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성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등등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재해석하도록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석과 인식 속에서 이 세상 속 나의 모습은 낯선 모습으로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500
내가 알지 못했던, 나를 끊임없이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에 함께 해보지 않겠습니까?	500

환영합니다!

프랑스의 비평가 롤랑 바르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을 직접 써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 혹은 그녀라고 상정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그의 이야기, 혹은 그녀의 이야기로 풀어나갈 때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동시에 모르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는 곧 나를 타자화시키고 나를 둘러싼 주변의 모습들을 낯설게 만드는 작업을 거치지 않고서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지나쳤던 많은 것들은 낯설게 보기의 과정을 통해 완전한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세계에 대해, 그리고 특히 나에 대해 낯설게 보기는 의미 있는 실천입니다.

아버지로 대표되는 수직적 질서가 관계의 규칙들을 구성하고, 의리와 형제애가 관계 맺기의 전형으로 생각되어지는 현재의 사회는 우리의 시야에서 많은 부분들을 가려버립니다. 남성들의 규칙과 관점으로 많은 것들이 구성되고 해석되는 사회에서 여성은 여성 자신의 시각이 아닌 남성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익숙함 속에서 여성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 자신의 욕망은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남성들 또한 모범적으로 짜여진 질서 체계 속에서 순응과 적응의, 무언의 압박을 받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성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등등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재해석하도록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석과 인식 속에서 이 세상 속 나의 모습은 낯선 모습으로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나를 끊임없이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에 함께 해보지 않겠습니까?

과학에서의 여성인식

1. 들어가며

미국 내 성형수술 시술비율에 대한 통계자료에서 보이는 두드러진 특징은 아시아계 여성들의 성형수술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어느 광고의 문구처럼 '여자의 변신은 무죄'이며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은 인간이라면(특히나 여성이라면) 누구나 지니는 속성이라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통계수치는 아시아 여성들의 미적 감각이 남달리 날카로움을 보여주는 것일까? 겉으로 드러난 수치에서 벗어나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보자. 미국 내 아시아계 여성들이 추구한(혹은 추구하는) 성형 모델은 어떤 것이었는지 말이다. 그녀들이 쌍꺼풀 없는 눈에 마늘 세 폭 형태의 동글납작한 코를 원하지는 않았을 것임은 분명하다. (원래 그녀들의 모습인걸.) 대신 그녀들은 백인 여성들과 유사한 생김새를 담당 의사에게 요구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백인 여성들이 기준이 되는 주류의 미를 따라가려는 그녀들의 욕망을 보여준다. 결국 여성의 성형, 곧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행위는 일차적으로는 자기만족적인 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름다움이 '누구'의 기준인지, 더 나아가 '누구'의 시선에 대한 의식인지를 생각해본다면 그저 개인의 단순한 선택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어떠한 현상이든 그것의 기준이 무엇이며 또한 그 기준이 누구의 시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준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표면적으로 객관적인 문제라 인식되는 영역에서의 이와 같은 접근은 문제의 이면을 바라보는 데에 필수적이다.¹⁾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객관성과 합리성의 대표적인 수행자로서의 과학을, 이와 같은 시각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특히 절대다수의 수행자-남성 과학자들이 이성과 합리성을 방패로 행했던 과학의 여성과 젠더, 성별 권력의 문제에 대한 의도적, 의식적 배제를 간단히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간략히 정리해볼 것이다.

1 앞에서 들었던 성형수술의 예를 생각해 보자. 표면적으로 드러난 객관적 통계 수치만 본다면 미국 내 아시아계 여성들은 백인 여성들에 비해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이 더 많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녀들이 왜 아름다워지고 싶은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아름다워지고 싶은 것인지에 대한 결론은 도출해낼 수 없다.

2. EnGendering²⁾ Science

이제까지의 과학은 젠더(性)를 일종의 오염변수(汚染變數)로 인식하고 이를 배제하는 것이 연구의 기본적인 원칙이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는 젠더를 오염변수로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으로서, 끊임없이 안고 가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은 과학의 주체와 대상 또한 사회 속에서 구성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현 사회 안에서 젠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젠더를 오염변수로 간주하는 기존의 시각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렇다면 어떠한 과학을 수행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한 대답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젠더와 무관한 과학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gender-free science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는 E.F. Keller가 「생명의 느낌」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으로서의 과학, 젠더가 없는 과학이다. 다른 하나는 feminine science를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젠더를 일종의 정화변수로 상징하고 새롭게 재해석 하자는 시각이다. 전자는 과학자들에 의해, 그리고 후자는 주로 여성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왔다. 그러나 젠더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연구를 수행하던, 젠더를 새롭게 긍정적인 의미로 재해석하던 이는 모두 젠더를 주어진 것으로서만 상징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주어진 무엇으로서가 아니라, 분석의 대상으로서 끊임없이 젠더를 가져가야만 한다.³⁾



- 2 영어에 있어 en-혹은 em-은 뒤에 붙는 단어의 의미를 강화하고, 부여한다는 의미를 만들어준다. 가령 power는 힘이지만 empower는 힘을 부여해준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engendering은 gender에 en-을 붙여 젠더 개념을 덧붙인다. 강화한다는 의미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이다. 따라서 engendering science는, 뒤에서도 이야기되는 것처럼 과학에 젠더 개념을 더해야함을 의미한다. ('어떤 상태가 생기는지, 일어나는'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engender와는 다른 단어임에 유의하자.)
- 3 젠더gender는 흔히 섹스sex와 비교하여 정의된다. sex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성을 이야기한다면, gender는 사회 속에서 개개인에게 내재되고 요구되는, 일종의 사회적 성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다. '남자는 이래야 해' '여자라면 이래야지'와 같은 방식으로, 사회 속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요구되는 서로 다른 성역할을 생각해 본다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성역할의 결정이 권력 배분의 차이와 맞물려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남성적인 것으로 규정된 것들이 좀더 가치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반면, 여성적이라 규정된 항목들은 하찮은 것으로 여겨진다. (직장 생활하는 '가장'으로서의 남성의 노동과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경시되는 여성의 가사노동을 비교해 보자.) 그렇기 때문에 젠더에 대한 인지는 중요하다.
- 4 흔히 함수에 있어서, 어떤 문자가 여러 가지 값을 취하는 경우 그 문자를 변수라고 말한다. 과학실험에 있어서 변수는 여러 가지 경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원하는 실험결과를 얻기 위해 엄격하게 배제되고 통제되는 것이 정석이다. 오염변수 또한 원하는 실험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명백하게 가로막는(실험을 오염시키는) 변수로, 통제된다.

3. 과학의 주체와 문제의 설정

앞에서 언급했던 '누구'의 문제는 곧 '주체'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과학의 주체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수행자의 성별분포 뿐만이 아니라, 그 주체를 드러내는 방식 또한 문제가 된다. 곧 주체가 무엇을, 어떻게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항상 구성되는 것이며 동시에 주체에 의해 새롭게 제기되는 것이라 하겠다.⁵⁾

1990년의 GAO의 보고서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보고서는 임상실험 시 여성과 소수인종이 (의도적으로) 배제되어왔음을 통계로서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미국 보건국의료국(NIH)은 '여성'과 '소수인종'이라는 변수에 의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NIH내부의 여성과학자들과 외부 여성단체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졌고 결국 92년 여성과 소수인종을 임상실험 시 분명히 포함시키고 임상연구에서 배제할 경우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도록 하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과학의 시선, 주체의 문제에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제까지의 임상연구에 있어서 여성이 주 대상이 되어온 영역은 피임, 임신과 같은 재생산 관련 영역이 유일하다. 그 이외의 연구는 모두 (백인) 남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다. 즉 여성의 몸을 남성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간주하여, "차이"의 과정으로서 여성을 바라봐 온 것이다.⁶⁾

4. 객관적 과학의 정치성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를 연구, 부각시켜온 것이 근대과학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의 부각은 곧 여성의 열등함에 대한 강조로 이어져왔다. 과학영역으로의 여성 진출의 거부와 배제

5 다너 하러웨이

6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환경운동 진영의 문제제기는 주체의 문제인식과 구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7 이러한 점은 영장류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대부분의 연구는 수컷 영장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암컷은 수컷 영장류의 성적 공격의 대상이나 새끼를 보살피는 역할을 지닌 존재로서만 인식되었다. 이후 J. Goodall, D. Fossey, B. Golding과 같은 탁월한 '여성' 영장류학자들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암컷을 동등한 개체로서 바라보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또한 영장류학의 주체가 누구인지, 연구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동시에 절대적으로 낮은 여성과학자의 비율이 증가되어야할 필요성 또한 보여준다.

재미있는 것은 암컷 영장류에 대한 개체로서의 연구가 진행되었을 때 남성과학자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영장류학의 암컷 편향성"을 주장하며 여성과학자들의 연구를 비판했다.

는 이러한 시각에서부터 비롯되었다.⁸⁾ 베이컨은 과학의 주체는 남성이며 자연은 탐구의 대상으로서 '초아의 신부'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했다. 따라서 '과학하기'는 masculine한 행위이며 feminine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러한 입장은 곧 과학자는 젠더와 무관한 사람이며 정신활동이 중요한, 초월적인 존재라는 사고를 수반한다. 그리고 여성(적)이지 않은 사람만이 과학을 할 수 있음을 또한 의미 한다⁹⁾. 실제로 영국 과학 협회의 실험은 밤에 이루어졌고 여성은 야에 입회할 수 없었다. 당시 modest한 여성은 고작 남성 과학자의 시중을 드는 사람 정도로서만 인식되었다. 이는 곧 과학의 비정치성 (그리고 젠더 체계와의 무관함)에 대한 규정이 허구일 수밖에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남성 과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어온 과학은, 생물학적 결정론에 대한 연구에서 성차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토마스 라커의 「섹스의 역사」에 의하면, 18세기 중반, 기존의 one-sex model에서 갑작스럽게 two-sex model로 인식이 이동하게 되었다고 한다. one sex model은 여성의 몸을 남성 몸의 상동기관으로 간주했고 남성의 성기(testical)를 뒤집은 모양이 여성성기(female testical)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18세기의 인식론적, 정치적 변화는 개체에 대한 관심과 여성의 지위변동을 가져온다. 이 시기 뉴턴에 의한 과학혁명이 완성되었고 전체론적인 시각에서 조화를 중요시하던 이제까지의 통합론에서, 원자론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는 환원론으로 그 시각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제는 통합보다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개인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동시에 귀족 중심의 기존 신분질서의 붕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남성의 여성에 대한, 백인의 유색인종에 대한, 피식민지의 식민지에 대한 지배는 존재했음은 18세기의 변화가 지닌 한계를 보여준다.

어쨌거나, 개인에 대한 관심은 차이에 대한 인식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two-sex model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라커는 이야기한다. 그러나 차이에 대한 인식은 우열의 문제를 수반한다. 이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생물학적 결정론에 대한 연구를 통해 표출되었다. 그 결과물들은 현재 우리가 쉽게 접하는 과학상식으로까지 자리 잡았다.¹⁰⁾¹¹⁾

8 선진국일수록 오히려 물리학에서의 여성과학자 비율이 낮다. (1994년, Science) 이는 곧 사회에서의 과학영역의 지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과학은 남성들만이 전유할 수 있는 일종의 성역이 되어버렸다.

9 영국에서 여성성, 남성성의 규정이 혼란하던 시기 보일은 자신을 modest-witness로서의 과학자로 규정했다. 과학의 주체는 남성임을 분명히 강조했던 베이컨과는 대조되는 정의를 할 수 있다. 조용한 성품이었다고 전해지는 보일은, 그러나 동시에 이와 같은 접근으로 인해 자신이 '여자 같은' 존재로 규정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예 또한 과학의 비정치성, 젠더와의 무관함을 허상임을 보여준다.

10 정규교육과정 중 생물시간에 배우는 남성과 여성 생식기의 해부도를 생각해보자. 남성 생식기는 유난히 돌출된 성기를 강조하는 모습으로 제시된다. 반면 여성생식기는 자궁을 중심으로 두고 펼쳐놓은 형태로 설명된다. 실제로 여성의 생식기는 T자형으로 펼쳐져 있지 않으며 오므려져 있는 모양으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성 생식기를 펼쳐놓은 모습의 해부도를 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궁에 대한 강조는 여성을 생식의 수동적 대상으로서만 보는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물이다.

♥: 참! 언니 저 안 그래도 지금 월경 시작했거든요. 근데 생리대는 어디 있어요?

☆: 생리대 자판기 말이지? 일단 학관까지 갈 여유가 있으면 학관에서 사도 되지만, 사실 문대 수업 듣다보면 잠깐 짬 내서 가기 힘들 때도 있잖아. 생리대는 문과대 1, 4층 여자 화장실이란 종합관은 1층 여자 화장실, 제 2인문관은 1, 2층 여자 화장실에만 설치되어 있지.

♥: 근데 언니 무슨 CF보니까 월경 할때는 약간의 운동이 좋대요. 후후

☆: 맞아. 안 그래도 나도 요즘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학교 안에서 할 생각이야. 학교 안에는 휘트니스, 검도장, 수영장, 테니스장이 있거든. 용재관 별관에 위치해 있다. 검도장이나 테니스장은 저렴한 가격에 수업을 받을 수 있더라구. 언니랑 같이 다닐래?

♥: 와! 좋은 생각이네요. 근데 저는 사실 운동보다도 음악 감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학교 내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곳은 음대 도서관이 좋은 거 같아요. CD, SP, 비디오 테이프 다 있잖아요. 물론 거기까지 못 갈 때는 학생회관 3층 푸른샘 옆 고전음악 감상실을 이용하지만요. ^^;;

☆: 대단한데? 벌써 그 정도 알아봤다니..... 그럼 너 언니가 문제 내볼까? 학교 안에서 심리테스트 하기 좋은 곳은?

♥: 웬... 그건 잘 모르겠다. 언니 어디예요?

☆: 해해, 사실 심리테스트라기 보다는 성격이나 진로 문제로 고민할 때 적성검사 받고 싶잖아. 내가 선택한 과가 잘 맞을까 싶기도 하고……그럴 때 친구들이랑 손잡고 학교 상담소에 가면 좋지. 나도 1학년때 했는데 좋았었어. 백양관 4층에 있는데 홈페이지로 먼저 예약을 해야 되더라구. <http://www.vonsei.ac.kr/counsel> 거든.

♥: 언니, 그런데요. 사실 고민은 학교 안에서 해매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직 신촌이 무슨 미국 땅처럼 낯설기만 한데 이번 주에 다른 학교로 간 고등학교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딱 보기에도 술집만 많은데 친구들을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 음…… 사실 여자친구들끼리 갈 곳이 학교 앞에 많은 건 아닌 거 같아. 물론 요즘에는 커피 전문점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웬지 자랑할 장소로는 부족하구. 이걸 정말 내가 3년 학교 다니면서 터득한 거네 너에게만!! 알려주지.

♥: 와! 뭐예요 언니?

☆: 먼저 좋은 카페가 궁금하지 않나? 언니는 주로 친구들과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을 때 신촌 치킨라이스가 있는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작은정원>라는 커피점에 가.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곳인데다 작아서 찾기가 쉽지 않은데 최근에는 카판을 크게 달았으니까 금

방 찾을 수 있을 거야. 빨간색으로 창문과 미닫이 현관문이 있는데 시끄럽지 않아서 좋아. 주인 아저씨가 술을 좋아하셔서 와인을 한잔씩 데워서 파시기도 하고, 커피에 럼주를 섞은 것도 있는데 맛있거든.

♥: 언니 그런데 친구 중에 커피 안 마시는 애가 있거든요.

☆: 그럼 아까 말한 신촌 치킨 라이스 몇 층에 있는 전통 찻집은 어때? <에그란>이라고 신촌에 사라져 가는 전통 찻집의 맥을 지키는 곳이야. 떡도 주고 차도 맛있어. 게다가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거든. 차를 마신 다음에는 친구들이랑 신촌의 현 책방을 가는 거야. 신촌 현대 백화점 정문에서 길을 건너서 도미노피자가 있는 데서 골목 안으로 들어 가다보면 오른쪽에 <숨어있는 책>이란 현책방이

있어. (333-1041) 인문사회과학 책들도 많고 공짜로 녹차나 커피도 마실 수 있지.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공씨 책방인데(336-3058) 교재 구입할 때 가보면 도움이 될 거야.

♥: 와! 언니 대단해요~ 이제 친구들이랑 놀 걱정 없겠어요. 해해, 언니 다음에는 술집도 소개해주세요!

☆: 으이궁! 못 살아. 암튼..... ^^

신나게 삼거리로 내려가는 문순이를 보며 ☆은 문대 지하 모반 방으로 향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은 또 다른 문순씨들~ 모반 방에 오시면 신촌의 보물지도가 가득합니다. 함께 공부도 하고 좋은 정보도 나누면 어수선하고 불안한 학기 시작이 든든하겠죠?



일상의 정치성

아이스케키와 일상의 폭력



얼마 전 어느 잡지에 실린 네이버 광고를 보았다. 치마를 입은 여자아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꾸그리고 앉아 있는 사진과 함께 "치마를 들출 때 왜 '아이스케키'라고 할까요?"라는 부제가 눈에 들어왔다. 아마도 그 광고는 '아이스케키'의 유래와 같은 사사로운 궁금증까지도 자기네 검색엔진에서 찾으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을 게다. 그러나 적어도 나에게는 역효과를 가져 온 광고였다고 할 수 있다. 사진 속에서 울고 있는 여자아이의 모습이 머리 속에서 떠나질 않았고, 벌써 10년이나 된 옛 기억이 떠올라 기분이 매우 나빠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어릴 적에 아이스케키를 당해보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 그 땐 그랬었지.'라며 그저 어렸을 적의 에피소드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여성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넘어가지지가 않았다.

아이스케키는 그것을 당한 아이, 즉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나는 일이다. 그리고 화가 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창피해서였다. "남자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의 치마를 들추어 수치심을 주고 그것을 재미 삼는다." 이것을 그저 (남자)아이들의 장난이라고 말해도 되는가? 그것을 당함으로써 느끼는 여자 아이들의 불쾌함과 수치심은 '남자 아이들이 즐겁기 때문에' 묻혀 버려도 괜찮은 것인가?

아이스케키를 당한 여자아이가 울고 있는 상황이 동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이진다는 것, 이는 우리 사회의 문화와 고정관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남자 애들은 원래 장난을 좋아해, 애들이 다 그렇게 놀면서 크는 거지."라는 생각들로 인해 아이스케키는 정당화되고 여자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이 장난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위치지어진다. "어느 누구도 남자 아이들에게 여자 아이의 치마를 들추어도 좋다는 권리를 주지 않았다"는 생

각은 하지도 못한 채 말이다. 이는 곧 여성의 주체성은 어릴 적부터 인정되지 못하였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러한 문화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여성들은 그러한 불쾌감들을 감수해야 하도록 강요당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스토킹 당하는 여성에게 "그 사람이 너를 좋아해서 그러는 거야."라며 스토킹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듯이 말이다.

사소한 장난인 것만 같은 아이스케키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곧 사사로운 일상과 놀이 그리고 문화가 우리의 행동과 사고방식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으면서 어느 누군가의 그리고 많은 여성들의 주체성과 자유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예민하게 세심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일상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일상의 정치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기활, 들어봤니?

기지촌 현장활동 소개

이석혜원, 임동계, 홍씨

1. <기·활>을 소개할게요!

기활은 요, 기지촌 현장활동의 줄임말이에요. 성매매가 왜 문제인지, 나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잘 몰랐거나, 책이나 언론을 통해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가요? 저 역시도 기활을 가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아니, 어쩌면 기활을 다녀온 지금도 제가 성매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떤 문제인지인건 삶의 현장과 괴리되어 있을 때는 오히려 그 문제인식이 위험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분명히 성매매가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 전에 그 속에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학문으로써, 이론으로써 현장을 보기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기지촌 현장활동을 통해 더 많은 것을 깊이 고민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2. 언제 어디서 무엇을?

기활은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 동안 일주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가는 곳은 동두천의 새옴터라는 재활 센터구요, 기활을 가려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참여는 힘들어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 신청을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총학생회가 매 기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총학생회나 각 단대 여성자치모임에 의사를 밝히면 돼요. 저도 이번에 처음 참여를 한 거라 무척 어색했는데 같이 공부도 하고 기활도 갔다오니깐 비슷한 고민을 가진 좋은 친구들을 여럿 사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

유의할 점은, 기활은 단순히 일주일 동안 새옴터를 들어갔다 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혹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나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보지 않는다면 기활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던져주기 힘들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일주일에 한 두 번 모임을 가지면서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공부를 해요. 이번에는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특별로 주제를 잡아서 공부를 했어요. 기지촌의

역사, 청소년 성매매, 성매매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선, 성매매방지법 등을 다뤘구요 그전에 워밍업으로 성매매 관련된 어렵지 않은 책을 두 권 읽고 이야기 나눴어요. 그런데 세미나라고 해도 우리가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봐서인지 감정이입이 되기도 하고 더 진하게 피부에 와 닿기도 해서 딱딱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새옴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새옴터는 동두천에서 성매매의 대상이었던 언니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에요. 상담을 해주기도 하구요 성매매 지역에서 탈출한 언니들을 보호해주거나 언니들이 핸드메이드 물건들을 만드는 일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활을 가면 언니들의 작업을 돕거나 언니들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공부방 선생님을 하게 됩니다.

3. 갔다왔지만...

그리고 보니 기활을 갔다 온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네요. 바로 엊그제 언니들을 본 거 같은데.. ^^ 나이는 이모 뽀빠보다 한참 위이지만 너무 편하게 우리들을 반겨주셨던 언니들. 흔히 사회가 갖고 있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선입관과 편견들 때문에 상처도 입고 불신도 생겼을 법 하지만 오히려 저보다 더 빨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던 언니들 덕분에 사회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로 성매매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사람의 문제이지만 그것이 사회의 외면 속에서 어떻게 잊혀지고 무관심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깨달았구요.

성매매 지역의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감히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결코 직업의 위치에서 대우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과 수많은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이라는 점 때문이겠지요. 성매매에는 단순히 성의 매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갈취가 있다는 점도 우리가 성매매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곳에서 일하시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구요. 요즘에는 필리핀에서 온 외국인 여성이 많은데, 그 분들이 한국 남성들에게 참 몸을 짓을 많이 당하신다구요. 그분들이 겪으신 일들을 상담해주고 있으면 자신이 한국인 성 구매자가 아님에도 그 분들에게 그렇게 죄송하고 미안할 수가 없다구요. 저 역시도 기활을 하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속상하면서도 언니들에게 미안했어요. 인간의 성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 구매자와 언니들을 이용해 돈을 버는 포주들도 미웠지만, 그보다도 이런 모습들을 외면하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제 스스로가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결코 나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아래에는 누군가가 몸을 숙여 굽은 등을 대주고 있는 것일

지도 몰라요. 아! 이미 알고 있다구요? 예이, 대학에 와서야 그것을 알게 된 저로서는 다시 한번 부끄러워지네요. ^^;;

아무튼, 저는 기활을 통해 2003년을 시작하게 된 것이 너무 행복했구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다음에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시 한번 새운터를 가고 싶어요. 먼 곳이라 여기고 눈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부릅뜬 눈으로 그곳이 그리 멀지 않은 곳임을 인정했을 때, 우리는 삶과 삶의 괴리를 조금은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영화와 책

함께 보는 책

II 1. 여성인물, 역사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위험한 여성

막달레나, 막달레나

20세기 여성사건사/길박세상/여성신문사(2001)

한국 여성인권운동사/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한울(1999)



II 2. 여성학 입문, 이론서

일상의 반란/글로리아스타이넴/현실문화연구/02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글로리아 스타이넴/현실문화연구02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케를 타브리스/또하나의 문화99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II 3. 여성과 노동

여성과 일/강이수, 신경아/동녘01

노동과 페미니즘/조순경/이화여대 출판부00

II 4. 여성의 몸과 성(성폭력, 성교육 관련)

섹슈얼리티 강의/한국성폭력상담소/동녘99

네 방에 아마존을 키워라/베티 도슨/현실문화연구01

버자이너 모놀로그/이브 앤슬러/북하우스01

다이어트의 성정치/한서설아/책세상00

II 5. 결혼, 가족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U.백/새물결99

반쪽이 부부의 작은 세상/변재란, 최정현/한겨레신문사97

II 6. 여성, 문화, 미디어

유지나의 여성영화산책/유지나/생각의 나무02

송백에서 강간까지/폴리 하스켈/주유신

문학과 페미니즘/뎀 모리스/문예출판사97

II 7. 여성인권, 민족주의, 군사주의섹슈얼리티의 매춘화

페니스 파시즘

북한여성들의 삶과 꿈

할머니 군위안부가 뭐예요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

페니스 파시즘

내셔널리즘과 젠더



II 8. 소설

생의 한가운데

이갈리아의 딸들

단순한 열정

수수밭으로 오세요

물의 말

딸기밭

아름다운 것은 무엇을 남길까

덜러웨이 부인

골드러시

무소의 물처럼 혼자서 가라

사랑과 상처

자린고비의 죽음을 애도함

학교의 다다

아르테미시아

딩링

빛의 한가운데

그 집 앞

플라스틱 섹스

가족시네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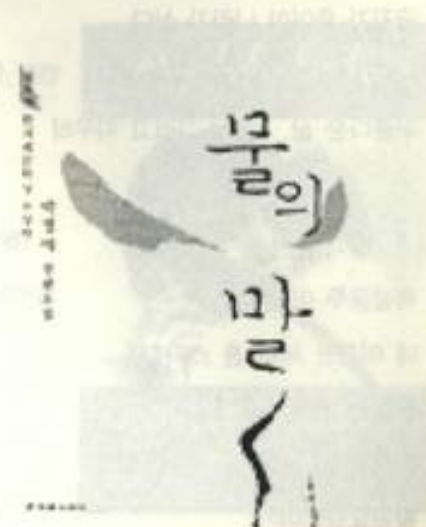
덕테

메데아

황금노트북 상, 하

슬픈 짐승

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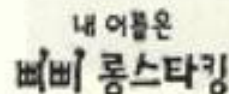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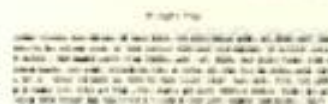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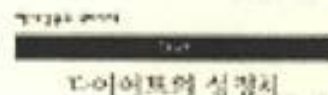
마요네즈
가족
나도 한 때는 자작나무를 탔다
길 위의 집
고삐 1.2

|| 9. 에세이

담배피우는 아줌마
결국은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아줌마 밥 먹구 가
페미니스트 홈메이커 Ph. D
세상의 균열과 혼의 공백
나는 제사가 싫다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나도 너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
아름다운 삶, 사람, 그리고 마무리

II 10. 동화

흑설공주 이야기
내 이름은 뽀뽀 롱 스타킹
끝없는 이야기
산적의 딸 로냐
황금요정이야기
흑설공주이야기



페미니즘 동화
내 옷이 제일 좋아
이게 뭔지 알아맞혀 볼래?
뽕뽕보 미켈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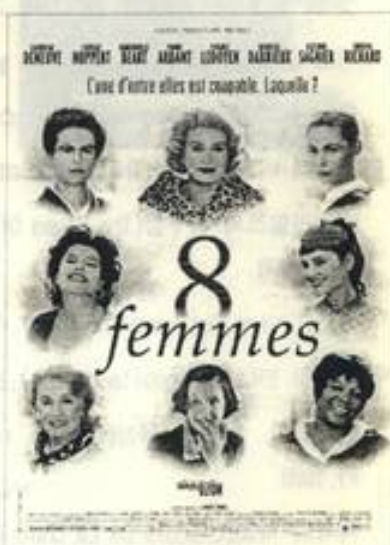
영화

▶여성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 본 영화들

이브의 모든 것(All About Eve), 조셉 L. 맨키비츠, 1950
비브르 사 비(Vivre sa vie), 장 뤽 고다르, 1962
세브린느(belle de jour), 루이 브뉴엘, 1967
바바라 허쉬의 공황시대(Boxcar Bertha), 마틴 스콜세지, 1972
립스틱(Lipstick), 레이몬 존슨, 1976
글로리아(Gloria), 시드니 루멧, 1980
애정의 조건(Terms of Endearment), 제임스 L. 브룩스, 1983
수잔을 찾아서(Desperately Seeking Susan), 수잔 세이들
언, 1985
웨더비(Wetherby), 데이비드 헤어, 1985
녹색광선(Le Rayon Vert), 에릭 로메르, 1986
한나와 그 자매들(Hannah and Her Sisters), 우디 알렌, 1986
시에스타(Siesta), 메리 램버트, 1987
바그다드 카페(Bagdad Cafe/Out of Rosenheim), 퍼시 애들론, 1988



- 로망스(Romance), 카트린느 브레이아, 1999
 처음 만나는 자유(Girl, Interrupted), 제임스 맨골드, 1999
 숨결(My Own Breathing), 변영주, 1999
 내 어머니의 모든 것(Todo Sobre Mi Madre), 페드로 알모도바르, 1999
 매그놀리아(Magnolia), 폴 토마스 앤더슨, 1999년
 더 월2(If These Walls Could Talk 2), 앤 헤이시, 2000
 러브 앤드 섹스(Love & Sex), 발레리 브라이언, 2002
 그녀를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Things You Can Tell Just By Looking At Her), 로드리고 가
 르시아, 2000
 노블리(Where The Heart Is), 매트 윌리엄스, 2000
 유 캔 카운트 온 미(You Can Count On Me), 케네스 로너
 건, 2000
 서클(Dayereh), 자파르 파나히, 2000
 밥 꽃 양, 임인애, 2001
 고양이를 부탁해(Take Care of My Cat), 정재은, 2001
 헤드윅(Hedwig and the Angry Inch), 존 카메론 미첼, 2001
 칸다하르(Kandahar), 모흐센 마흐말바프, 2001
 슈팅 라이크 벅햄(Bend It Like Beckham), 거린더 차
 다, 2002
 그녀에게(hable con ella), 페드로 알모도바르, 2002
 8명의 여인들(8femme), 프랑스와 오종, 2002



모반? 모반!

문과대 여성주의 모임, <모반>을 소개합니다!

모반은 '모든 가부장제에 반대한다'의 줄임말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언제나 비주류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평등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람들보다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 많다는 사실에 주목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러한 침묵을 깨려는 움직임,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할 수 있는 목소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모반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인간과 인간이 서로 평등하게 어울릴 수 있는 사회를 바라는 것과 다름없겠지요. 모반은 여성주의의 창을 통해 바라본 세계가 모두가 평등한 '공존'의 세계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반에서는 매주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불평등과 가부장적 문화에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여성이기에 겪는 불편함에서부터 성별권력관계, 성폭력, 성매매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소책자 발행, 모반 영화제, 성교육 프로그램 등의 자체 행사를 꾸준히 준비하고 있으며 매년 가지촌 현장 활동에 참가하거나 3.8여성의 날 행사 등의 다양한 외부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은 조금씩 수정되고, 그 뿌리는 더욱 공고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사회의 모습을 어렵듯이 발견하고 꿈꿀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모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소수의 입장에서 사회를 읽어내는 시선임과 동시에 그것은 곧바로 현재를 끊임없이 반추해 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원하시는 분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분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기대하겠습니다!

클림트 1900년

클림트 1900년, 1900년, 1900년, 1900년

포럼? 안포

이메일주소: moban@moban.wo.to

이메일주소: moban@moban.wo.to

이메일주소: moban@moban.wo.to

이메일주소: moban@moban.wo.to

이메일주소: moban@moban.wo.to

이메일주소: moban@moban.wo.to

<http://moban.wo.to>

(먼저 회원 가입하셔야 합니다.)

함께한 사람들

달리, 샘, 노래, 파룬, 훌씨, 편집자 보람, 딸